

 금융위원회	보도 해 명			• 생산적 금융 • 포용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9.2.12(화)
책 임 자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홍 성 기(02-2100-2990)	담 당 자	이 지 현 사무관 (02-2100-2993)	

**제 목 :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규제 완화를 논의할 TF를
구성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[조선일보 '19.2.12일자 가판에 대한 설명]**

1. 기사내용

- ① “금융 당국이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8년 만에 저축은행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. 12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, 전문가 등과 저축은행 규제 완화를 논의할 TF(태스크포스)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.”
- ② “정부 관계자는 “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규제가 과도하게 강화된 측면이 있다”며 “이를 다시 살펴보고 풀어줄 것은 풀어주자는 취지”라고 설명했다.”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저축은행 업계 전반의 현황을 건전성 측면에서 실무 점검·평가 중이며,
 - 이는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